

2020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07.09. (목) 14:00~15: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3명 중 11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주창윤(의장), 성혜경, 조정환, 이도희, 송미경
 - 나. 직원대표 : 김홍석, 이계원
 - 다. 학생대표 : 황선진, 신동인
 - 라. 동 문 : -
 - 마. 외 부 : 장유식(부의장), 손인웅
4. 불참자 : 최형심, 박희옥(동문)
5. 심의 안건
 - 1) 교양대학 설립(안)
 - 2) 교육혁신단 직제 개편(안)
 - 3)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4)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심의 안건 - 교양대학 설립(안)

기초교육원장이 교양대학 설립(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교양대학 설립 시 ‘교양대학 개편 방향 2단계’로 명시된 ‘다양한 학사제도 도입’에 있어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교양대학은 기존의 바롬인성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 중 인성교육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교양대학 설립에 따라 기존의 기초교육원 소속이었던 교직지원센터, 인터넷윤리센터가 교양대학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비교과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각 부서에 분산된 비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담당할 수 있는 비교과교육 통합관리센터 등의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 외에도 현재 교양영어 부문에만 책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데, 교양의 각 영역별로 책임교수를 배정하여 영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양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앞으로 교양대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교양대학 설립 취지에 따라 교양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는 교양대학 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학 차원에서 접근하여 설계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제를 확립하는 등 조직이 안정화되면 영역별 책임교수를 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 교양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책임교수들이 함께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의 영역별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양대학장 외에 영역별 책임교수를 두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관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교양대학이 설립되면 교양대학장이 교무위원회를 통해 교양교육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소통이 기대된다. 과거에 바롬교양대학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된 사례가 있었음을 거울 삼아 이번 교양대학 설립 및 운영은 보다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 교양대학 설립에 따른 교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가. 또한, 교양대학장은 처장, 센터장 등의 겸직이 예정되어 있는가. 교양대학 설립 시, 보직자 및 업무 담당자가 겸임하게 되는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 교양대학장이 교양교육부장, 교직지원센터장, 인터넷윤리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번 교양대학 설립은 기존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통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교육부, 정부기관 등의 각종 대학 평가를 위한 대안으로만 교양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양대학을 합리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향후 교양대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교수를 배치하고 행정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 다수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교양교육의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교양대학의 체계와 교육과정의 수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점차 업무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 교양대학 설립 시 사무분장 개편(안)에 따르면, 교양대학 교학팀이 교직지원센터 업무를 제외한 교양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조직도의 교학팀은 교양대학 및 하위조직 사이에 별도로 측면으로 위치하고 있다. 사무분장으로 볼 때 교학팀은 교양대학과 하위 조직의 가운데에 배치되어 교양대학 직속으로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따라서 교양대학 바로 아래로 교학팀이 위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서 교양대학장이 교양교육부장을 겸직하는 체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아울러, 교양대학의 하위조직인 교양교육부와 바롬인성교육부가 교직지원센터, 인터

넷윤리센터와 같은 교양대학 소속으로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조직의 성격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윤리센터는 교육혁신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도의 교학팀이 교양대학과 하위조직 사이에 별도로 측면으로 위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조직 체계 및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행정조직은 상위 부서의 바로 밑에 직속으로 위치하여 하위조직의 행정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으나, 단과대학이라는 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교학팀은 행정업무의 주체가 아닌 지원 조직이므로 별도로 측면으로 위치하도록 정하였다.
- 기초교육원이 교양대학으로 승격되면, 교양대학과의 관련성이 낮은 센터는 적절한 곳으로 소속을 이동할 계획이다. 이전 직제 개편 시 기초교육원 산하의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미운영 센터 등은 폐지하고 조직을 정비하였다. 단, 인터넷윤리센터의 경우, 우리 대학의 인성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사이버 윤리 등 인터넷 윤리를 교양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고자 했던 계획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추진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와의 연계성이 있어 정비하지 않았으며 추후 소속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지원센터의 경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등의 평가가 있어 교양대학 산하에 두고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추후 센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동을 검토할 수 있다.

○ 최근에 여성학 분야 교원의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여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가.

- 향후 여성학 관련 교양과목은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획 중에 있다. 단, 여성학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여성학 분야의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였다. 교양대학이 설립되고 교양대학의 위상이 높아지면 기존에 행정부서 차원에서의 교수 초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교양대학장이 책임을 갖고 외부의 우수한 교원을 초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 정부기관 등의 각종 대학 평가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교양대학 설립(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2. 심의 안건 - 교육혁신단 직제 개편(안)

경영기획팀장이 교육혁신단 산하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추진사업단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추진사업단 산하로 이동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교육혁신단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교양대학 설립에 따른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대학 편제에 있어 교양대학을 다른 단과대학보다 먼저 기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양대학이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대학의 편제 중 가장 먼저 기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단, 추후 공모전을 통해 교양대학의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양대학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때, 변경된 명칭이 대학의 편제 가장 앞에 위치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양대학의 기술 위치는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양대학 명칭을 유지한다면 현재와 같이 다른 단과대학보다 앞서 교양대학을 기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기 변경에 따른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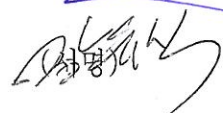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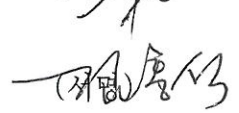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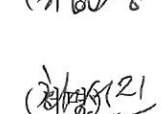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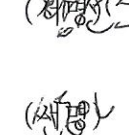
- 의장이 2020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차기 회의 일정

- 교양대학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의 심의를 위해 8월 중순 ~ 말 경에 차기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이 15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7월 9일

의 장	주 창 윤	(서명) 
부 의 장	장 유 식	(서명) 
평 의 원	성 혜 경	(서명) 
평 의 원	조 정 환	(서명) 
평 의 원	이 도 희	(서명) 
평 의 원	송 미 경	(서명) 
평 의 원	이 계 원	(서명)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평 의 원	황 선 진	(서명) 
평 의 원	신 동 인	(서명) 
평 의 원	손 인 웅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 